

## 지역의 전통적 지혜와 생물다양성 *Local Wisdom and Bio-diversity*

준피터 팍파한(Junpiter Pakpahan, 인도네시아)

### 배 경

식량공급자인 농민들의 지역 전통적 지혜(local wisdom)에 대하여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들어있는 두 가지 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역의 전통적 지혜는 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공식적인 지식’(formal knowledge)과 맞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물소로 땅을 가는 법을 알아냈을까요? 누가 가축 분뇨를 좋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누가 상처 치료제로서 심황을 알아냈을까요? 누가 인도네시아의 선다족(Sunda tribe)이 사용해온, 지금은 암이나 선천성면역결핍증(HIV, AIDS)에 대한 면역체계로 특허를 받은 쓴 멜론(bitter melon)을 찾아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옮겨 봅시다. 왜 영양실조나 식품의 불안전성이 발생하겠습니까? 예화를 들자면, 제 집 뒤뜰에 먹이를 찾고 있는 토종 암탉(local hen)이 병아리와 함께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는 벌레나 다른 먹이를 찾기 위해 발톱으로 땅을 파 헤치거나 나뭇잎들을 헤칩니다.

암탉은 먹이를 찾는 기술로 발톱을 사용합니다. 그 때, 병아리들은 기빠서 짹짹거리고 암탉은 먹이를 찾으면 소리를 내서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한 떼(무리)의 병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living institution)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병아리들은 사람이나 다른 야생동물이 해치지 않는 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영리합니까? 사람인 우리들입니까? 토종닭들입니까? 만일 정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식료(食料, food)를 제공할 수 없다면, 사람이 지역의 토종닭들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언제나 타인에게 의존해 산다면 육계나 우사(牛舍)에 갇혀있는 젖소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지요? 모든 생명 자원들은 - 소비를 위해서건 돈을 벌려고 판매하건 - 결국 한 가지 목적 즉, 잡혀 먹이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 지역 전통 지혜의 파국적인 상실

최근의 흐름은 식생활 습관의 변화인데, 우리 사회가 생산한 지역의 식료들(쌀, 카사바 등)은 피자나 빵 같은 '현대적'(modern)인 것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소비습성과 자체 생산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바꾼다면 농업과 식량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은 전 세계에서 1943-1960년대에 성장하였는데 농업 분야의 큰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쌀과 밀 교배종자들(hybrid seeds)의 확산과 혁명적인 증산을 초래한 농업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녹색혁명은 1960년-1970년에 시작되었는데 교배종자, 화학비료, 농약 그리고 농기계로 상징됩니다. 녹색혁명은 농민들 간의 관계 및 농민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녹색혁명이 농업분야 - 당시는 낮은 생산성, 낮은 수확, 낮은 성장, 그리고 가난한 농부로 특징되는 시기였기에 - 특히 국가 발전을

위한 '구세주'(savior)로 생각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녹색혁명시대는 과연 성공적으로 생산성의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식량자급 기간은 매우 짧아서 1985, 1986, 1988, 1993년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장 달콤했던 시기는 1984년인데 아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식량자급국가로 알려졌고,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상(賞)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 현황> (1960-2006)

연도	총 량 (천톤)	수입비율(%)	연평균수입량(천톤)
1960	890	8,68	
1964	1.024	10,44	1.000
1969	604	5,35	392
1974	1.071	7,74	1.051
1979	1.930	10,99	1.539
1984	375	1,76	893
1989	262	1,05	84
1994	876	3,52	290
1995	3.014	9,32	3.014
1996	1.090	3,28	1.090
1997	406	1,30	406
1998	7.000	22,81	7.100
1999	5.014	15,59	5.014
2000	1.800	5,56	1.800
2001	1.400	4,46	1.400
2002	3.100	9,58	3.100
2003	2.400	7,31	2.400
2004	2.000	5,92	2.000
2005	304		304
2006	710		710

위의 자료는 생산성의 증가가 농민들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는 복지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강요나 두려움에 의해 추동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군(軍)의 지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종자 심는 일과 화학 비료 및 농약사용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초국적기업이 생산한 화학종자(chemical seeds)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던 가격 계산의 농사체계는 이제 국가권력과 산업화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돈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배종자들, 화학비료, 농약은 북쪽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의 채널 역할을 하는 대형 매장을 통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여러 가지 농약을 구매하는데 매년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살충제 구입에 11억 5백만 달러, 제초제는 11억 7천만 달러, 살균제는 8억 4천만 달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농약의 대부분은 벼농가에 의해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관개이외의 물 사용료도 내야 합니다. 화학농자재들은 이제 농가의 문지방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밖에도 단작(單作) 수확체계는 오염 및 환경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어지고, 농민들이 갖고 있던 지역의 토종 종자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손에 넘어가고, 상호부조의 노동문화가 사라진 것은 생물다양성의 빈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녹색혁명은 생물다양성과 농민들의 지역 전통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 전통의 지혜와 토종종자의 상실은 물질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식량의 수입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식량의 불안전성이 발생하면 기아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량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며, 그것은 농업의 재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재배 기술, 수확 후 처리 및 가공기술의 도입은 그 다음 일입니다.

## 농업의 재건(지역 전통의 지혜와 생물 다양성으로의 회귀)

우리는 '지역의 토종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적응력 있고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의 환경 내에 있는 모든 것(everything)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동식물은 너무 다양하여 우리가 사용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역 문화는 영감과 적응력 그리고 혁신의 자원으로 탐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견해로는, 다양한 경험과 관찰의 경력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일정 정도의 농업체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식량주권(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매우 좋고, 지혜롭고, 적정하고, 단순한 기술과 잘 결합되고,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명이 난 조상들의 농법과 기술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선조들의 농법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농업, 복합농업으로 불리는 농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축산과 경종농업 간의 협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인도네시아 바딕 토바 종족의 표현 즉, "Sinur na pinahan, Gabe naniula, Horas Jolma" 는 비료를 조달해야 하는 농민을 위한 최선의 해결입니다. 자연농업 혹은 유기농업으로 더 잘 알려진 농업은 다양한 활동 단위들(circles), 특히 시민사회(NGO, 농민단체들, 교회들 등)가 조상들의 농법으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2) 농민들은 또한 가족농업구조와 가족식량(제 먹을 것을 심어서)을 통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농은 대규모 농업에 의해 침식된 땅을 다시 회생 시킬 수 있는 매우 가치있는 농법입니다. 가족농은 정원

농사(home gardening)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딱 종족은 이것을 ‘파르고둥간’(Pargodungan)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르고둥간’은 주변의 잠재적 자원과 자연 자원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친환경적인 농법으로써, 이것을 통해 농민들은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했던 것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가족농운동은 또한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해충 방제는 통합해충방제(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개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해충을 죽이거나 박멸하려는 의도를 갖지는 않고, 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없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통합해충방제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문화적,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인 것과 결합된 해충 방제방식으로서, 비용과 건강 및 환경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 대체제’를 만드는 작업을 통하여 알게 된 몇몇 기술들이 함께 혹은 그룹으로 사용도 되고 응용도 되는데, 해충이 싫어하는 향을 갖고 있는 나뭇잎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작이나 윤작으로 더 잘 알려진 작물 다양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복작물의 사용도 있습니다. 바딱 종족은 “새는 새집을 만들고 쥐는 구멍을 뚫는다”고 말했습니다. 쥐와 새가 어떻게 쌀이나 수확물을 건드리지 않는지 살펴보면 농민들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농민들은 (특별히 ‘마르시아다파리’로 불리는 바딱 종족의 땅에서) 상호 협동의 감각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르시아다파리’는 품앗이를 의미하는데 공동노동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땅을 개간할 때, 추수할 때, 집을 지을 때, 그리고 마을을 조성할 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마르시아다파리’는 사전(事前)에 결정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 각 사람은 밭에서 팽이질을 하면서 - 실질적인 노동의 교환입니

다. 품삯은 없고, 음식을 나눕니다.

## 결 론

역사로부터 배웁시다. 자연과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입증된 지역의 전통적 지혜와 생물 다양성은 한 국가의 식량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요소로서, 번영과 식량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인간의 지혜에 관한 또 다른 예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종족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발리섬 사람들이 좋은 예입니다. 발리의 농민들은 다양한 맛을 지닌 수십 개의 과일 종(種)을 보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바두이 종족은 치료 효과가 있는 다양한 식물 종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NGO), 연구기관들, 종교기구들, 대학들,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 전통 지혜 발전의 성공은 농민들이 의식화되어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녹색혁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여 조직을 통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농민들의 복지와 식량주권이 실현 될 수 있는 길입니다. ❶